

‘헌혈 100회’ 조선대 김진주씨 적십자 헌혈유공장 명예장 받아



조선대 직원 김진주(27·사진)씨가 헌혈 100회를 달성,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 김씨는 대학 ACE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지난달 29일 헌혈의집 조선대센터를 찾아 100번째 헌혈 뒤 명예장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모교인 진흥고에 온 헌혈버스에서 처음 헌혈한 뒤 꾸준히 참여해왔다. 그는 또 과학교육학부 전공을 살려 대학원 졸업을 앞둔 현재까지도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육 멘토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최우수 교육기부 팀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씨는 “소아암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꾸준히 헌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보성군지부 보행보조차 무상 공급



농협보성군지부(지부장 안성열)는 거동이 불편한 원로 농업인에게 성인용 보행보조차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농협보성군지부 제공)

장성 출신 장용훈 한지장 명예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장용훈 명예보유자가 1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전남 장성에서 1937년 태어난 고인은 한지 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의 뒤를 이어 한지 만드는 일을 해왔다. 경기도 가평군 정평면에 ‘장지방’을 경영하면서 한지 제조와 보급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1996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방’ 보유자로 인정됐고, 2010년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가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한지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인사

- ◆여수시
 - ◇5급 승진 ▲박준소 소라면장 직무대리 ▲오영록 삼산면장 ▲조현중 동문동장 ▲김지주 월호 “ ▲조정애 묘도 “ ▲박홍식 정수과장 ▲박형용 광림동장 ▲천춘길 국 “ ▲이창선 만덕 “
 - ◇5급 전보 ▲강성원 정보통신과장 ▲신영식 여성가족과장 ▲문덕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인관 의회사무국 “ ▲정원완 공평개발과장 ▲장두한 공원과장 ▲박은규 문화예술과장 ▲송석주 중부민원출장소장 ▲정재호 중앙동장 ▲김용필 여서동장 ▲나병곤 시전동장
- ◆전남대
 - ▲김영만 공과대학장 ▲최영수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철웅 사범대학장 ▲백성진 자연과학대학장
- ◆광주대
 - ▲정상양 대학원장 ▲이상기 국제교육원장

“난 행운아... 입양문화 확산 위해 노력할 것”

고향 광주서 아동복지 활동 수지 보글러(본명 최성진)씨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 무연고 아동들에 나눠주고파 장애인시설 후원 등 공로 광주시사회복지협 감사패

“저는 1958년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두 살이나 더 많았어요. 어쩐지 제가 또래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웃음)

광주의 한 길가에 버려진 뒤 미국으로 입양됐다 60살이 돼 고향을 다시 찾은 수지 보글러(여·60)씨는 자신의 굴곡진 삶과 달리 유머가 넘쳤다. 1일 만난 그의 첫 인상은 ‘쾌활함’ 그 자체였다.

한국 이름은 ‘최성진’. 1957년 부모와 헤어졌고 같은 해 2월28일 광주 충현원으로 보내졌다. 품속 쪽지에 적힌 이름(최성진)과 ‘출생일 1956년 10월11일’을 제외하곤 부모를 추적할 단서가 없었다.

태어난 지 약 4개월 만에 충현원으로 보내졌던 최씨는 1961년 8월 5살 때 미군으로 전쟁 고아들을 후원하던 브로디(Donald H. Brodie)씨 부부에게 입양돼 미국으로 떠났다.

“제 생일이 서류상 문제로 2년이나 늦었던 것처럼 제 이름도 해당 기관에서 붙여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2014년 광주를 처음 방문해 확인해보니 이름은 본명이었던군요.”

그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에도 전혀 위

축되거나 차별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설명했다. “양부모 결혼기념일에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늦어져 언니 생일에 도착했었습니다. ‘동생’을 선물 받은 언니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날 아껴줬어요.”

그는 또 “입양 당시 서울 다른 아이들과 모여 일본 도쿄를 거쳐 미국 시애틀, 또다시 시카고로 가는 긴 여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아팠고 승무원들은 결국 나 하나만 시카고로 데려갔다”고 했다.

3살 먹은 아이였고 만약 그때 자신도 다른 아이들과 아팠다면 지금의 양부모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는 ‘행운아’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씨는 충현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후원을 낸 것과 고아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이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그와 언니, 오빠 등 4남매는 부모의 유산을 나누지 않고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 자선사업을 하고 있고, 고향 광주에도 고아 방지와 아동들의 장학금 후원



1일 광주를 방문한 수지 보글러(한국명 최성진·왼쪽 두번째)씨가 충현원 유혜량(왼쪽 첫번째) 원장, 박태석(오른쪽 첫번째) 변호사 가족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등을 진행 중이다.

2014년 최씨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광주 충현원을 찾아가 그녀의 이름과 생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녀가 애타게 찾는 진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제 양부모가 절 입양할 당시에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절 기다려주고 행복하게 키워 주셨어요. 저는 그 행복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수많은 무연고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입양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하고 견디며 절 기다려주고 행복하게 키워 주셨어요. 저는 그 행복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수많은 무연고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입양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최성진씨 부모님이나 친척,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은 광주일보 문화미디어부(062-220-065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6기 드림페스타 실시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지난 29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에서 ‘2016 아시아나 드림윙즈 6기 드림페스타’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한 ‘드림윙즈(Dream Wings)’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들 대학생들의 꿈 실현 결과물 발표를 위한 ‘드림페스타(Dream Festa)’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월, 참가 접수를 통해 시작된 ‘드림윙즈’ 6기 모집에는 총 962명(1486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드림윙즈’ 6기 멤버로 선발된 20개 팀은 지난 5월 국내에서의 꿈 여행을 통한 1차 ‘드림윙크

(Dream Week)’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올해 6~7월, 2개월에 걸쳐 2차 ‘드림윙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취항지에서 각자의 꿈 실현을 위한 여행을 체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실시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베스트 드림러’의 영예를 차지한 ▲오리날다 ▲교대나아 ▲속속 등 3개 팀에는 국제선 무료항공권이 각각 부상으로 지급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영암 월출산서 등산학교 열어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 류재강)은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주관으로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간 영암 국립공원 월출산 일대에서 ‘제38회 광주전남등산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등산학교에는 정규반과 압력반으로 나뉘어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등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과정과 등산학교 수료자와 전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가 참가하는 전문과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아영과 취사, 등산의 원리 및 장비, 안전대책과 응급처치, 독도법, 등산사, 전환경 등산, 히말라야 등 해외 고산 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등반 등으로, 종합등반도 병행됐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한국등산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간학교’가 최초로 하게 정규반과 압력반, 동계 방벽반 등을 매년 운영해왔으며 히말라야 8000m급 14차 완등 등 산악운동과 산악인 양성에 공헌하고 있다.

류재강 등산학교 교장(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은 “성실·인내·안전이라는 교훈 아래 올리는 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통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호남 알파니스트 산악인 광주·전남 등산학교가 제대로 된 등산문화를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행주기씨 덕성군 종중 임시총회=11일(목)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신흥동 428번지 오남제, 문의 총무 010-2224-4739.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치·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에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수강생=27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9층 904호. 양택·음택·수맥·나경·입향론·비결특명당·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강의와 책자 무료 제공, 접수문의 010-3609-8117.

▲한국노후생애 대학원 12기 학생=행복한 노후생활을 원하는 열정 있는 중·장년 대상. 노인심리상담, 명심보감, 노후생애설계 등 6개월 과정, 무료수업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12시. 광주 동부경찰서 옆 신세계영어학원 5층. 접수 3~31일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디자인 스펙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인쇄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301호 故윤영인 님(남/86세) 子/子婦: 윤만림/정선희, 영배/이거숙, 송근/박진희 女/婿: 윤광민/이유래, 자유, 경숙/유재욱, 혜안/이성환 未亡人: 제영순 ●발 인: 8월 3일 ●장 지: 보성문덕 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김관평 님(여/84세) 子/子婦: 김성기/김숙자 女/婿: 김태균 孫女: 김보라, 슬기 ●발 인: 8월 3일 ●장 지: 임실호국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최희기 님(남/96세) 子/子婦: 최영문/김숙자, 명수, 명숙/이계희, 광숙 女/婿: 최영자, 광자/현숙, 명란, 명옥/이계희, 광숙 ●발 인: 8월 2일 ●장 지: 광주 지월선영 ●연락처: 227-4383	101호 故정호철 님(남/68세) 子/子婦: 정현수/신나래, 수길 女/婿: 정수연/김계주 未亡人: 최희영 ●발 인: 8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102호 故임덕순 님(여/72세)
 子/子婦: 정연준, 현진/김덕희
 孫: 장병호, 병수
 ●발 인: 8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부음

▲이용한씨 별세 증현·금순·은숙·은희씨 부친상 김수성·김종기씨 빙부상=발인 2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임등부씨 별세 경철·철웅·지용·향희·희옥씨 부친상 정주성씨 빙부상=발인 3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